



농약중독으로 년 천여명 사망의眞僞

오약은 병해충이나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우리들에게 고품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농업자재이다. 현대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결한 농업용 약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중독의 위해성이 없어야 하며 농산물의 오염, 환경 파괴, 약해 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즉 농약은 개발당시 독성이나 잔류성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은 농약으로서 실용화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농약중독으로 연간 1,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농약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여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연보'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농약중독)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를 근거로 하여 보도된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4년 1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수는 230,677명으로 그중 대부분(199,661명)이 각종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전체 사망자의 13.8%에 해당하는 32,016명이 교통사고등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원인별로 보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50%정도로 가장 많다. 농약중독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1,647명으로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약중독사고에 의한 사망자의 35%이상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농약중독 사망자의 상당수가 농약 살포작업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원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각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농약중독 사망자를 원인별로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표에서와 같이 연간 500여명 내외의 농약중독 사망자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98%이상이 자살용으로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하였고 실제 농약살포 작업중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람은 연간 1~2명으로 전체 농약중독 사망자의 0.4%에 불과했다.



정 영 모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 과장

자살목적에 이용한 시간일뿐

이러한 결과로 보아 통계청에서 집계한 농약중독사고에 의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자살을 목적으로 농약을 이용하였을 뿐 농약의 정상적 사용시에 농민이 중독사망한 것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웃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신문이나 TV등의 매스컴에 보도되면 그 정보의 사실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도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여과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과 무관한 분야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외로 그 정보에 빠져들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심리적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보도내용이 신문의 3면기사 정도의 가벼운 내용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농약중독으로 연간 1,000여명이 사망한다'라는 보도와 같이 그 보도내용이 불특정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회적 충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보도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과학적인 원인과 내용을

농약 공포... 4년간 4천8백명 중독사

'중산우선' 정책이 사용량 증가 부추겨
농작물 오염 심각·농지 황폐화도

농민 57% 중독 경

질투의 증상에 치우친 것으로 해서 장수류 농약 사용 증가 농약중독 사고도 늘 농약의 과다 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중독 시에는 75년 2만천1백11명이라는 1992년 농민 57% 중독 경

한겨레신문

매년 1천명 이상 死亡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농약중독사고의 원인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약의 자살의 목적으로 이용한 하나의 사건 일뿐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농약을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독 사망한 사고가 아니다. 만약 농약을 사

용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중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농약은 개발 당시 이미 도태되어 실용화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독특한 사건에 이용된 물질을 농약이라는 말로 보편화시켜 보도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살과 같이 어떤 물질을 원래의

년도별 농약중독에 의한 인명피해(농촌진흥청)

년 도	계	방제작업	자 살	과실·부주의	타살등 기타
1991	515 (100%)	5 (1.2)	507 (98.4)	2 (0.4)	- (0.0)
1992	557 (100%)	1 (0.2)	544 (97.7)	9 (1.6)	3 (0.5)
1993	542 (100%)	2 (0.4)	535 (98.7)	4 (0.7)	1 (0.2)
1994	435 (100%)	2 (0.5)	425 (97.7)	7 (1.6)	1 (0.2)
1995	414 (100%)	- (0.0)	411 (99.3)	3 (0.7)	- (0.0)
계	492 (100%)	2 (0.4)	485 (98.4)	5 (1.0)	1 (0.2)

지금 농가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피해는 그 물질을 사용한 사람이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물질이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쓰기 나름... 완벽한 안전은 없어

한편 농약은 독이며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로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또한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여과없이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안전한 물질이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안전한 것이라야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위험과 피해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안전한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100%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는 여러가지 문명의 기기(利器)들이 있으며 이들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즉 전기나 수도, 가스, 자동차등 수 많은 기기들은 우리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들이며 이들을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명의 기기들은

100%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누구도 '그렇다' 라고 단언적으로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의 적절한 사용법에 따라 위험성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지 완벽한 안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농약도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기나 수도, 가스 등과 같이 근대 농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농자재이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다든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독이나 환경 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하여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등 농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현대 과학이 창출한 어느 문명의 기기들 못지않게 안전한 물질이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정밀화학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고유의 용도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해성 문제로 농약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넌센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

람은 그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크므로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고 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농약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필요하므로 사용되는 것이다. 농약을 필요로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들(농약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의 농약사용 금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농가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과학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물질의 위해성 여부는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평가되어야 하며, 잘못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의 논의는 넌센스일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농약정보**